

## 2) 야곱의 속임수와 라헬의 속임수 (31:17-21)

17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18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19 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20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21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 31:17-18/ '야곱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  
 '낙타들에게 태우고': 빠른 도주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동시에 라헬의 속임수에 대한 전조.  
 '그가 모은 바 모든 가축과... 이삭에게로': 지리적으로 밧단아람에서 멀어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됨.  
 \*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이제 아내들과 무수한 소유와 더불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감.  
 \*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데라를 떠났을 때 박탈당했을 모든 재산이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의 소유가 됨.
- 31:19/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반과 아들들이 짐승 떼 관리하는 일에 몰두한 배경.  
 '라헬은... 도둑질하고... 야곱은... 말하지 아니하고(마음을 훔쳤다)': 같은 단어 '가나브(훔치다)'를 사용.  
 '드라빔':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의 일종. 귀금속으로 만든 것으로써, 라헬은 이것으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려 함.
- 31:20-21/ '가만히 떠났더라, 도망한지': 에서를 피해 도망친 일을 떠올리게 함.  
 - 야곱의 행로는 두려움에 달아나는 것으로 점철. 야곱의 속이는 삶에는 개인과 가족의 희생이 뒤 따름  
 '도망한지': 고향에서 밧단아람으로 도망하였다가 밧단아람에서 고향으로 도망함으로 완전한 순환이 성립.

## 3) 야곱과 라반의 분쟁 (31:22-44)

22 삼 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23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 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24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5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 31:22-25/ '삼 일 만에', '칠 일 길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과 긴 기간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 일 길을 쫓아가': 군대의 추격을 묘사하는 단어. 라반의 악의를 반영.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여 이르시되': 아비멜렉의 꿈을 연상.  
 '삼가': '주의하라' - 베엘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과 맥을 같이함.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둘러싼 보호의 울타리를 넘지 말 것.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형제와 더불어... 장막을 치고': 양측의 극적인 교착 상태를 묘사.  
 - 라반의 '친족'들에 포함되지 않는 야곱의 가족들: 가나안에 있어야 할 야곱의 가족들과 구별.

26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7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8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29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30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 31:26-29/ '네가 나를 속이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야곱이 자신을 속여 딸들과 손자들을 유괴했다고 비난.  
 - 야곱이 레아와 동침한 후 라반에게 했던 질문.  
 '내가 즐거움과... 너를 보내겠거늘': 라반은 자신에게 기회가 있었다면 훈훈한 송별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은 야곱 가족 전부에게 협박을 가함.  
 -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묶어 두고 있음을 고백.
- 31:30/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거짓 동정으로 야곱을 궁지에 몰아 넣음.

31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32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 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 31:31/ '내가 생각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첫 번째 비난을 인정하면서 라반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두 번째 혐의점을 부인. 자신의 결백을 확신.  
'우리 형제들 앞에서': 친족들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라헬의 계락을 알지 못했으며 라헬을 죽음의 위기에 빠뜨림.

33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34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35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 31:33-34/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두 여종의... 라헬의': 라반은 야곱의 결백을 믿지 않음.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낙타는 부정한 생물로써, 우상에 대한 반감을 나타냄.  
'라반이...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반의 무능이 절정에 처했음 - '더듬거리다'.  
- 31:35/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라헬의 속임수는 혼인 때의 라반의 속임수에 대한 라헬의 보복.  
'마침 생리가 있어': \* 월경 중인 여성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정서 반영.  
\* 월경 중인 여성에게 깔린 우상에 대한 조롱.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 라반의 실패를 세 번 반복함으로 모든 수색 수단을 다 사용했으며, 야곱의 분노를 정당화할 빌미 제공.

36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37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되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38 내가 이 이십 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 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이십 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사 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육 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42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 31:36-37/ '야곱이 노하여': 라헬의 '노하지 마소서'를 통해 야곱의 정당한 분노와 라반의 이기적인 적대심을 대조.  
'책망할새': 라헬의 도둑질보다 라반이 저지른 죄가 더 큼.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자신을 괴롭히는 일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 친족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증명해 보라고 도전-라반의 비난을 무력화.  
\* '내 형제', '외삼촌의 형제' - 데라 가문이 두 민족으로 나뉜 것을 암시.  
- 31:38-40/ '내가 이 이십 년을... 함께 하였거니와': 20년 동안 라반의 목자로 건넌 괴로운 삶에 대한 증거 제시.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먹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은 라반의 짐승들을 세심하게 보살폈으며 빼돌린 것이 없음.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보충하였으며': 라반은 부당하게 야곱에게 손실된 짐승에 대한 보상을 요구.  
'낮에는 더위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라반 밑에서 혹독한 생활을 견뎌야 했음.

- 31:41-42/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사 년... 육 년을': 야곱의 불만-일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음(안식년을 초과).  
'내 품삷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의 불만-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함.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라반의 오만을 이용하여 침묵하게 만듦(29절).  
'이삭이 경외하는': '이삭이 두려워하는'이라는 의미. 라반에게 공포를 심어주신 하나님에 대응.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정당성을 입증해주심.

43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내 양 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 31:43-44/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야곱의 성취에 라반이 느끼는 쓰라림; 야곱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믿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이 어쩔 도리가 없이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풀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  
'언약을 맺고': '언약을 자르다' - 전형적인 언약 형식.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증거의 수(48, 50, 52절)가 이들 사이의 불신의 깊이를 드러냄.  
'너와 나 사이에': 독립된 두 공동체인 아람인과 히브리인 사이의 평화 협정이 되는 조약이 서술됨.

#### 4) 야곱과 라반의 합의 (31:45-55)

45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47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 31:45-47/ '기둥을 세우고': 야곱이 제의 목적으로 하는 행동에 부합.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자기 진영에 있는 자들에게 지시하여 돌로 '무더기'를 세움  
- 구약에서 돌더미가 조약 합의의 일부로 기능하는 유일한 경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음식을 먹는 일은 언약 합의에 자주 동반되는 의식.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여갈사하두다' - 증거의 무더기를 뜻하는 아람어.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갈르엣(길르앗)' - 증거의 무더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 같은 표시에 두 이름을 모두 기록: 라반과 야곱이 대표하는 서로 다른 두 민족에 강조를 두고 있음.

48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49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0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51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 31:48-49/ '오늘... 증거가 된다': 돌이 증거임을 반복하며 "오늘"이라는 한정을 추가하여 조약의 엄숙함을 강조.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훗날 입다의 고향이 되는 '길르앗'  
'미스바라 하였으니': '감시하다' - 멀리 있는 야곱 대신 여호와께서 살피실(판단하실) 것을 상기시킴.
- 31:50/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 자신의 딸들과 그 딸들이 낳은 자녀들에 대한 지위를 보장해주기를 바라는 조건.
- 31:51-52/ '...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보라(히네)'를 두 차례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단호하게 강화.  
'내가...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반은 야곱을 장래의 위협으로 여기고 있음.  
\* 라반은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정 -꿈의 암시

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훔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54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 31:53-54/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판단하옵소서':
  - \* 민족 간 조약의 전형적인 패턴에 따라 신에게 자신들의 언약 조항 준수를 지켜봐줄 것을 요구.
  - \* 라반의 종교관: 라반은 아브라함과 나홀 각각의 신에게 간구. 그들의 조상(데라)은 우상숭배자.
  -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과 대조되는 야곱의 신앙.
  -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 공식적인 맹세와 제의적 희생 식사로 합의를 확인.
    - 평화 합의에는 흔히 맹세와 식사가 동반(출 24:11; 34:15; 신 29:11).
    - \* 이들의 이별이 갖는 성격이 환대의 평화로운 정신임을 암시.
- 31:55/ '아침에 일찍': 벤엘에서 야곱이 계시를 받은 후의 아침을 묘사한 28:18의 반복.
  - 야곱이 밧단아람을 떠나게 된 것은 이 계시에 대한 기억과 이어진 라반과의 긴장 때문.
  - '라반이...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라반은 야곱의 은밀한 탈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을 마무리.
  - 축복의 본질은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베풀었던 것과 유사할 것(24:60).
  -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과 야곱의 헤어짐을 분명히 함.

## 9. 브니엘에서 복을 얻기 위한 쟁투(32:1-32)

### 1) 사자들(32:1-12)

- 1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 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 32:1-2/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반이 집으로 돌아간 앞 절을 암시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야곱의 여정을 표현.
-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벤엘에서 약속하신 보호하심의 임재.
  - \* 야곱이 두 차례 겪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중 첫 번째 경험으로, 에서와의 만남에 대비.
  - \* 벤엘에서 겪은 신현 꿈의 반복(28:12) - 약속의 땅 바깥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심.
  - '하나님의 군대': '진영'은 이동성이 있는 거주지인 반면 '벤엘(집)'은 영구적인 거주지.
  -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신이 보았던 것에 감동된 야곱의 외침 - '벤엘'과 평행.
    - '마하나임(두 진영)'의 의미: 야곱이 나눈 두 무리의 가족을 보호하는 기능?

- 3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 4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 5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 6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 7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 8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 32:3-5/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 털이 많은(세일), 붉은 죽(에돔)을 언급함으로 에서가 야곱에 의해 장자권을 상실했음을 상기시킴.
  - '내 주 에서... 주의 종 야곱': 에서에 대한 복종의 표현. 이삭의 축복을 뒤집은 것.
  - '라반과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라반 집안에서 외지인이었음-이제 가나안에 정착할 것을 시사.
  -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복종의 자세를 수용할 것을 요청.
- 32:6-8/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우리가 다가오는 급박한 상황을 묘사.
  - 400명: 에서 또한 20년의 기간 동안 성공했음을 증명 - 아브라함은 318명으로 동쪽의 왕들을 쫓음.
  -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려워했지만 무력해지지 않고 계획을 세움 - 최악의 상황을 가정.
  - '동행자와... 두 떼로 나누고': 가족을 짐승보다 먼저 나눔으로 우선순위가 자기 가족이었음을 암시.
  - \* '떼(진영)': 마하나임의 반복 - 각자 하나님이 보낸 자의 감독하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